

탐라사 복원 이야기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 박 찬 식

1. 잃어버린 탐라, 잊어버린 역사

최근 지방정부,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제주 역사문화, 탐라 역사 바로 알기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고대왕국 탐라의 진취적인 역사를 재인식함으로써 변방·고립·단절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추진의 정신적 바탕을 단단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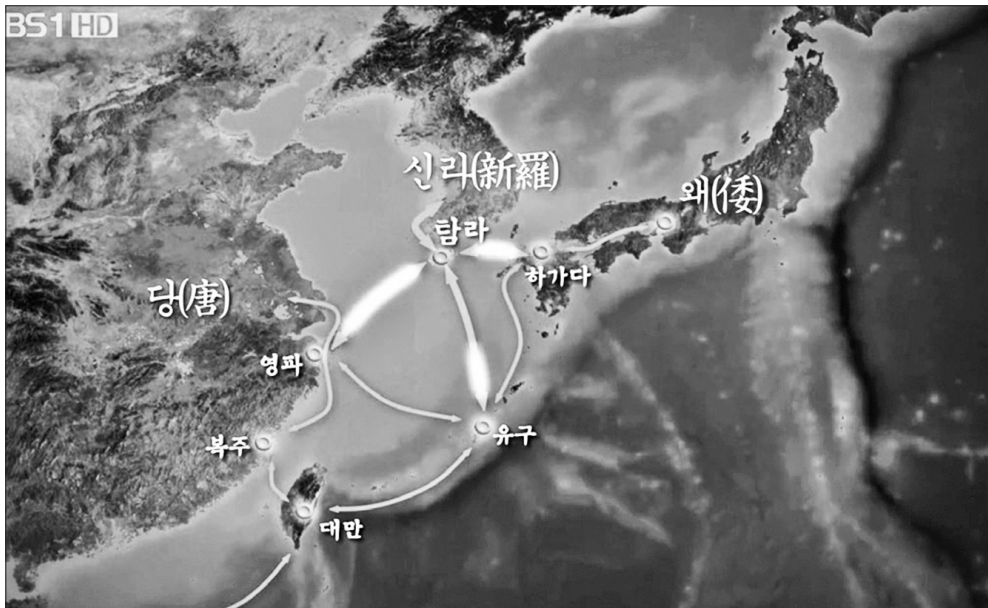
1995년 민선 도정 출범 이후 추진되었던 ‘제주사정립사업’ 또한 비슷한 목적 지향점을 갖고 있었기에 새삼스런 일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2002년 국제자유도시, 2006년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도민의 정신세계를 재인식하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더욱이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수많은 이주민 입도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도민 스스로 독특한 제주문화의 기본상식을 몸소 터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

탐라(耽羅)는 2천 년 전에 제주섬에 건설된 고대 문명국가였다. 아놀드 토인비가 지적한 대로 인류 문명사에서 유산(流産)되고 생후 자라지 못해 죽어버린 문명에 비하면, 탐라는 번영에 성공한 문명국이었다. 지배층의 성립, 해민(海民)들의 교역을 통한 국부(國富) 창출, 신라를 위협할 정도의 해상 대외 진출 등 탐라는 천년 사직을 유지한 해상왕국이었다. 고구려·백제가 일찍 멸망해도 탐라는 존속했다는 기본 사실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1105년 고려왕조에 탐라가 병합되었어도 지배층의 자치 방식과 서민들의 기층문

화에는 변함이 없었다. 탐라왕국을 복원하려는 양수(良守)의 난(1168), 삼별초군을 해방군으로 맞이하는 태도, 몽골 지배 때 탐라로 복귀 사실 등은 탐라민들의 일관된 태도였다.

1천 년 이어진 탐라가 멸망한 지 9백 년이 지났다. 중앙집권과 유교문화를 국가의 모토로 내건 조선왕조 시대를 거치며 제주사람들은 '탐라'를 서서히 잊어갔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쳐 물질 산업화의 세례를 받으며 '탐라'는 우리에게서 더욱 멀어져갔다.



〈사진 1〉 탐라시대(통일신라기) 해상교역도

1990년대 본격 개시된 지방자치시대는 멀어져간 탐라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중앙주도적 제주도 개발과 IMF 위기상황을 겪으며 제주도는 기존 중앙의 국가체제에 안주해서는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발로가 특별자치 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유구(琉球)왕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가는 오키나와, 잉글랜드에 통합되었어도 역사와 언어·문화를 자랑스럽게 유지해나가는 웨일즈. 모두 섬나라 탐라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와 미래는 제주도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21세기 제주 주민공동체에 주어진 특별자치의 지향은 기회이기보다는 위기에 가깝다. 중앙에 의존해오던 기존 관행을 깨부수고 스스로 계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자율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고립을 면치 못하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공동체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관심은 그들 스스로를 결속시키고 집단적인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지방정치의 활로가 될 수 있다. 탐라 역사의 본질을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젠다와 결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 탐라호국당(耽羅護國堂) 이야기

1105년 섬나라 탐라는 천년 이어진 사직 왕조를 고려에 내어줌으로써 생명을 다하였다. 1168년 탐라 왕족 양수(良守)의 반란으로 인한 피해, 고려말 목호란에 가담한 제주도민에 대한 초토화, 1402년 조선왕조에 의한 성주·왕자 직위 폐지 등 섬사람들은 중앙권력에 의해 억눌려왔다. 중앙 조정은 제주도를 이단과 반란의 터전으로 인식하였다. 그러기에 무근성 옛 탐라도성과 성주청을 말살한 그 자리에 목관아, 관덕정, 무관청을 건설하였고, 제주도를 해안 방어와 국마(國馬) 사육, 유배죄인 수용의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1702년 유교원리주의를 앞세운 이형상 목사는 탐라인들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던 광양당·차귀당을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광양당·차귀당은 한라산신(하로산또)을 모시는 탐라호국 신사(神祠)였다.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한라산신의 동생신 광양왕(廣壤王)이 매로 변하여 탐라의 맥을 끊고 돌아가려던 호종단(胡宗旦)을 죽여 버린 전설이 소개되어 있다. 고산의 옛 지명 차귀(遮歸)는 호종단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는 역사적 의미가 이름 속에 스며들어 있다.

탐라 때로부터 이어져온 탐라선민들의 신앙 대상이 한라산신과 광양왕이며, 이들을 모신 신전(신당)이 광양당, 차귀당, 광정당, 광원당 등이었다. 남구명의 『우암선생문집』에는 광양당이 제주섬 전역에 산재한 신당의 조종(祖宗)이라고 하였다. 광양당은 지금의 송당본향당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광양당과 차귀당은 제주도의 대표적 신당으로서 매년 봄과 가을에 남녀가 무리를 지어 술과 고기를 올려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일종의 나라축제(國

祭)가 아닐 수 없다. 이형상 목사는 이들 신당과 제사를 불경스럽다고 하여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만 유교식으로 남겨놓은 채 탐라의 기억을 담은 신당들을 철폐하여 버렸다. 탐라정신 말살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지금 제주도에는 광양벌, 차귀도, 오백장군, 지장샘 등 호종단(탐라침략자) 척결의 탐라호국 전설이 배어있는 역사문화 공간이 하나 둘이 아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수월봉 일대의 자구내, 차귀도, 당산봉, 당목잇당(차귀당) 등은 탐라 스토리텔링 문화 벨트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삼성신화로 일컬어지는 탐라개벽신화 못지않게 탐라를 지켜낸 광양왕의 전설과 기억공간을 특별자치 제주도민들이 더욱 사랑하고 가꾸어낼 필요가 있다.



〈사진 2〉 광양왕이 매로 변해서 호종단을 물리친 전설의 섬 차귀도

3. 자치지향의 제주민 저항사

제주의 전체 역사를 통해 수없이 일어난 제주인들의 저항 움직임은 탐라국의 해체와 때를 같이하여 일어났고, 이후에도 장기지속적으로 탐라국 독립과 자치에 대한 집단적인 감성과 기대심리가 잠복해 있다가 표출되곤 하였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의

경우, 1168년 양수가 주동한 반란, 정부군을 외면하고 삼별초 반란군을 해방군으로 맞이한 사실, ‘목호란’에 대거 동참했다가 정부 진압군에 몰살당했던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소덕유 · 길운절 반란’ 사건에 문충기 등 토호가 가담했던 일, ‘양제해란’을 탐라국 독립 거사로 조작했던 사례, ‘방성칠란’ 때 ‘탐라왕족’ 고여송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실 등이 거론된다. 일제하 아나키즘운동과 자주운향운동, 공동체적인 저항인 해녀투쟁 또한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4·3의 공동체적 저항과 집단적 희생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항의 움직임이 반드시 외래세력과 관계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중앙정부를 외부 세력으로 보았을 때, 양수의 반란을 비롯한 고려시대 민란, ‘강제검란’을 비롯한 조선후기 민란은 중앙정부를 대신한 목민관에 대한 투쟁이며 곧 외래세력과 전면전이였다. ‘이재수란’, 일제하 항일운동과 4·3은 침략세력으로 인식된 프랑스 · 일본 · 미국에 대한 전면 투쟁이였다. 또 한편으로 제주민은 외래세력과 연대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삼별초와 함께 한 반정부 · 반몽골 투쟁, 몽골인들과 더불어 싸운 ‘목호란’, ‘육지인’(소덕유 · 길운절, 남학당, 유배인 등)들과 합세한 ‘문충기란’, ‘방성칠란’, ‘법정사 항일투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양수의 난

‘양수의 난’은 탐라 멸망 후 63년 뒤, 첫 지방관(현령관) 파견 후 6년 뒤에 일어났다. 고려 후기 전국의 민란은 대부분 1170년 무신정변 후에 일어났는데, 그보다 앞서 제주도에서 대규모 민란(반란)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 민란은 왕자직을 계승한 양씨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양수가 주동한 것으로서, 이전 고유 · 고조기 등이 고려조정과 타협하며 중앙정계의 관리로 진출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이 주도하던 이전 탐라국으로 돌아가려는 분리주의 정서가 짙게 깔린 움직임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사건 이후 양씨 세력은 왕자직을 잃어 토호세력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그를 대신해 전라도에서 이주해 온 문씨 세력이 왕자직을 계승하게 되었다. 1백 년 뒤 발발한 문행노의 난과 이를 진압한 왕자 양호와 의 상호 관계, 몽골 지배 후 양씨 세력의 동향 등은 향후 치밀한 고증을 필요로 한다.

무신정변 이후 고려 조정은 탐라의 동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1186년 어떤 이가 탐라가 반역했다고 명종에게 고하자, 왕은 허둥대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

시하였다고 『고려사』 기록은 전하고 있다. 다른 지역 같으면 대규모 항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르지 않았음을 보건대, 탐라가 고려로부터 다시 독립하려는 데 대한 경계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고려사』는 다른 지역의 민란을 ‘봉기’, ‘난’으로 기록한 데 반해, 탐라에서의 항쟁을 ‘반란’으로 명기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삼별초란과 제주민

삼별초에 합세하여 항쟁한 제주민의 입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항과두리 유적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민족사적 입장에서 삼별초군이 제주에 입성하여 끝까지 몽골군에 항전한 제주민의 호국정신의 상징으로서, 또는 국난 극복을 위한 제주민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과연 이러한 해석이 당시 제주민의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 것일까?

13세기경 제주민의 태도는 여몽연합군의 편도, 그렇다고 삼별초(고려 국권회복의 입장)의 편도 아니었다. 삼별초 입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탐라국의 국권 회복 의지를 불태우게 했던 제주민 자체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국가사 내지 민족사란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각 지역의 역사들이 재조명될 때 오히려 풍부한 역사 해석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목호란과 제주민

‘목호란’에 가담한 제주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제주민은 고려 관리들의 잦은 수탈로 고달픈 생활에 허덕이며 고려 조정에 대한 불만을 누적시켜 갔다. 토호층은 처음에는 목호 편에 가담했다가 뒤에 목호 세력이 약해지자 고려와 원, 명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다. 그러나 제주민들은 목호란에 대거 가담하여 끝까지 싸움을 같이 했다. 그러기에 최영 장군이 진압군 2만5천의 병력을 이끌고 명월포로 들어올 때 제주민은 목호와 함께 3천의 기병으로 저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결과는 처참한 것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우리 동족이 아닌 것이 섞여 갑인(甲寅)의 변을 불러들였다. 칼과 방패가 바다를 뒤덮고 간과 뇌는 땅을 가렸으니 말하면 목이 메인다”라고 하여, 고려와 목호 사이의 총력전 과정에서 제주민이 커다란 희생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목호란’을 통해서도 제주민이 1백 년 가까이 혈연 공동체를 이

룬 몽골인들과 함께 싸움으로써 생존을 유지하려는 잠재된 독립의식이 깃들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3〉 ‘목호란’ 최후의 결전장이었던 범섬과 관련 전설이 남아있는 외돌개

4) 이재수란

‘이재수란’은 20세기 벽두인 1901년 한국사회가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외래 문화와 토착전통문화, 외세와 대한제국, 국가와 지방 사이의 충돌로 빚어진 총체적 사건이다. 변방 제주섬도 한국을 둘러싼 외세 열강들의 침탈이 횡행하는 국제정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백년 전 근대화의 충격을 외래 봉세관의 수탈과 천주교의 교폐를 통하여 접하였던 제주민들에게 저항은 지극히 당연한 본능적인 대응형태였다. ‘이재수란’은 20세기 초 제주민이 새로운 외세·외부문화의 횡포에 저항하였던 자기정체성의 표출이었다.

“나무 한 그루에도 세금을 거두는 판에 구차하게 사느니 죽는 것만 못하다”라는 민중의 말을 통해서 극단적인 수탈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강인함의 상징인 제주여성들이 참다 못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프랑스놈”이라고 질시하며 민란

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개 관노의 지위에서 모두가 꺼리던 지도자를 자청하여 죽음의 길로 나아간 이재수는 당시 제주민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민란의 과정에서 이미 그는 민중들에게 전설적인 영웅으로 부각되었다. 제주민들이 “인물됨이 영웅호걸이며, 한라산의 정기를 타고 난 예사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며 그를 따랐다. 중앙정부와 외세에 의해 침탈되던 변방 제주섬의 최하층민이 민란의 최고지도자로 나섰다는 것은 제주민의 외부에 대한 저항의식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사건의 과정에서 제주민 자신의 발언이나 외부인의 눈을 통하여 제주민의 독립의식이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재수가 제주성을 함락한 뒤 “서양 사람을 쳐 없애서 제주성을 회복하였다”라는 발언이나, 재판정에서도 “우리가 죽인 것은 역적이지 양민이 아니다”라고 한 최후 진술은 제주민 나름의 자치관념을 엿보게 한다. 당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제주에 왔던 미국인 고문관 샌즈(W. F. Sands)는 제주섬을 “독립의 전통뿐만 아니라 여러 이상한 관습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그는 제주민들을 “조선으로부터 독립을 바라는 해묵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였고, ‘이재수란’을 “섬 주민 전체가 동의한 반란”이라고 표현하였다.

결국 ‘이재수란’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변방의 최하층민으로 전락하였던 제주민들이 그들 나름의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싶은 기대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와 차별에 대한 저항의식이 함께 표출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섬의 역사와 현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은 인구 백만 내외의 소규모 독립국가 또는 자치정부를 이루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섬은 해상왕국, 해상교역, 활발한 이주 등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대륙의 중앙집권국가에 정복당해 지배를 받게 되면서 섬에 대한 이미지는 유배, 격리, 침탈, 정복, 원주민 학살, 수난 등의 부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한동안 바다는 거친 자연, 태풍, 위험, 외국의 침략 창구 등 섬을 고립시키고 가두어버린 공간이었다. 그러기에 섬사람들은 바닷길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가난과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섬사람들은 자급자족의 힘으로 자존(自存) 공동체의 사회경제, 역사문화, 현실사회를 지탱하여 왔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가려는 섬사람들의 생활사는 자기정체성이나 존재를 대륙이나 반도보다 더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공동체문화를 배태시켜 왔다.

20세기에 들어와 섬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항공기와 선박기술의 발달로 섬의 독특한 문화, 매력적인 자연경관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찾아지기 시작했다. 경제구조가 취약한 섬 정부와 섬사람들은 관광을 섬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력한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이면에 섬 지역경제에 대한 외부자본의 지배, 개발 과정에서 주민 소외와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과 같은 부정적 결과도 함께 하였다. 또한 수많은 환경·사회·문화적 문제들이 대두하게 되었다.

최근 세계의 섬들에서는 삶의 질 향상, 방문객 관리, 자연환경 유지 등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균형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자치 지방정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과거 '탐라' 독립왕국이었던듯, 세계의 섬들은 독립국 또는 자치주나 자치도로 존재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스페인의 마요르카, 프랑스의 코르시카와 같은 지중해 섬들은 제주도처럼 경제자립을 위해 특별자치를 선택했다. 사르데냐 섬 주민들은 섬에 설치된 본국의 군사기지 철폐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을 지지하며, 1999년에는 사르데냐어를 이탈리아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였다. 군대 주둔을 국제협약으로 금지한 노르웨이의 스피츠베르겐 섬 같은 곳도 있다. 세계의 여러 섬들은 스스로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위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의 섬들은 최근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자원의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덴마크의 보른홀름 섬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의 자원으로서 스마트그리드 실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린스에드워드 섬은 우주항공산업과 천연가스, 풍력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의 마요르카는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재구성하고 있다. 제주를 찾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의 고향 모리셔스는 도약 단계에 들어선 자치경제를 기반으로 향후 인도양경제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섬을 변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저히 적어졌다. 오히려 새로운 해양문명의 중심이고 인류 문명이 지속 번영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부각되

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섬들이 보여준 성공과 실패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찾아나갈 시점이라고 하겠다.

21세기 초 제주사회는 격변의 과정에 놓여 있다. 제주인들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 평화의 섬, 세계 경관의 섬」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개념에는 특수성과 보편성, 자존심과 개방성, 자율성과 책임성 등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섞여있기 때문에 실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존심과 정체성을 강조한 특별자치도가 전제된 위에 보편성과 개방성이 담긴 국제자유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로서 세계적인 평화와 경관의 섬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초 위에서 본다면 제주사회의 기초가 될 문화정체성, 제주정신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정신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면면히 흘러온 제주인들의 삶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정신은 제주섬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 그 요체는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공동체성, 대동정신, 자율과 자치정신’이라고 하겠다. 같은 집안에 안거리와 밖거리가 병존하는 개성과 자존심을 가진 공동체, 협력과 자율이 병행하는 공존의 정신이 21세기 새로운 제주사회의 비전과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진 4〉 세계적인 경관의 섬으로 부각된 제주섬